

# 新年辭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직토마의 강인한 기운이 깃든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 희망과 용기로  
채워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침체된 건설경기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일감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 관령 규제 강화 등  
으로 인해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켜내며, 부산의 도시  
경쟁력과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百折不屈(백절불굴, 백번 꺽여도 굽히지 않는다)의 자세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축적된 기술력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있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 또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이 힘차게 질주하는 해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사회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開新創來(개신창래)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사 권익 보호와 일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생과 협력의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구·군, 부산시교육청, 각종 공사·공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하도급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 전문건설업체의 공공성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회원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건설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은 물론 법률·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체 운영 중인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회원사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는 회원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내며, 가장 강력하게 회원사의 권익을 지키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40년이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0년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나가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뜨거운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확고히 자리 잡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협회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형점

